데스크 시각

정치가, 정치인, 그리고 보스

박 치 경
정치부장·편집부국장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이 심각하다. 우리 정치가 낙제점인 것은 사실 어제오늘이 아니다. 심심찮은 비리, 이전투구로 정치와 정치인은 기피대상이 된지 오래다.

새해도 별다르지 않다. 가장 큰 요인은 붕당(朋黨)과 계파(系派)다. 여당엔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이 있다. 야당엔 '친노'(親盧)와 '비노'(非盧)가 있다. 조선시대엔 노론(老論)과 소론(少論),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이 있었다. 과거의 당파싸움이 면면히 이어지는 셈이다.

근래 우리 정치권은 내부 싸움이 치열하다. 여야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겉으로는)사이가 좋아졌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입법과 정기국회에서 협상과 타협으로 제법 '정치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양쪽 집안싸움은 부쩍 심해졌다. 왜일까? 답은 선거에 있다. 2016년 제 20대 총선(4월 13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서다. 공천권을 놓고 당내 헤게모니 다툼이 뜨거워지는 탓이다.

동상이몽 새정치 당권

우선 오는 2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연합을 들여다보자. 당권은 친노(문재인)와 비노(박지원·이인영)가 혼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박 후보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 후보가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은 바로 내년 총선 프레임 때문이다.

19대 대선 설욕을 노리는 문 후보는 당권을 거머쥐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바탕으로 당내 기반을 다져야 대권 후보로 가는 길이 탄탄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박 후보는 자신이 당권을 맡을 테니 문 후보는 대권에 몰두하라고 채근한다. 그러나 문 후보는 뜻이 다르다. 일단은 "(당대표가 되더라도)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최다 지분 보유자로 평가받는 문 후보가 당권을 확보한다면 대권 지렛대로 삼을 개연성이 크다.

경선 초반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탈당은 새정치연합 계파싸움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비노 측은 친노의 득세로 당의 앞날에 희망이 없어 정 고문이 떠났다며 문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이쯤에서 새정치연합이 외면당하는 이유를 따져보자. 새정치연합 텃밭인 호남민과 지지자의 요구는 전대를 통해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라는 것이다. 전대에서 '멋진 정치'로 환골탈태해 정권교체의 희망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계파싸움 소리만 들려온다.

그렇다면 멋있는 정치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감동이 넘쳐야 한다. 우리가 김대중·노무현을 큰 정치가로 여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을 감동시킬 줄 아는 정치가들이라는 것이다.

'감동 전대' 안하면 다 죽는다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불사했다. 집권 후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족을 열광시켰다. 노무현은 분권화(分權化)의 상징이다. 특정계층과 지역에 몰려있는 권력을 나누는 게 그의 정치철학이었다. 자신도 권력을 포기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과감하게 지방에 분산했다. 그게 바로 나주를 비롯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다.

이런 정치를 펴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정치가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물론 그들에게도 허물은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김대중, 노무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것은 국민의 피를 뜨겁게 하는 큰 정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부류는 '직업란을 정치인으로' 쓰는 사람들이다. 현재 우리 정치권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 가장 저급한 집단은 '모리배'(謀利輩)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다. 정치권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범죄자 수준으로, 이를 이끄는 이는 '보스'에 해당한다.

새정치연합 당권 후보들 스스로 새겨보기 바란다. 비전과 감동으로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가'가 될 것인가. 평생 여의도를 기웃거리는 '정치인'에 머무를 것인가. 철저하게 이익만 쫓는 '모리배'의 우두머리인 보스로 추락할 것인가.

새정치연합 전대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흥행은 바닥이다. 되레 국민의 시선은 총리 교체와 개각으로 분주한 여권에 쏠려 있다.

새정치연합이 살 길은 단 하나다. '양보'와 '살신성인'으로 극적인 반전을 꾀하지 못하면 가망이 없다. 공멸과 공생, 모두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

/unipark@kwangju.co.kr

은펜칼럼

'월드 프렌즈 코리아'

박 행 순
카트만두대학교 약학과 객원교수

정부가 1990년 아시아 네 나라에 44명을 파견한데서 시작한 해외봉사단원의 수는 작년까지 5만 여명으로 집계된다. 해외봉사단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등이다.

2009년, 정부는 그간 각 행정부처별로 분산되어있던 해외봉사단 사업들을 통합하여 '월드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라는 이름으로 단일 브랜드화했다. 현재는 KOICA봉사단, IT봉사단, 대학생봉사단(KUCSS와 PAS), 과학기술지원단, 퇴직전문가, 태권도평화봉사단, 중장기자문단의 8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봉사단의 다양한 역할들을 아우르는 WFK는 '세계인의 친구, 한국!' 이라는 메시지를 단순하고 확실하게 부각시키면서 대한민국 정부 파견 봉사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봉사단들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WFK의 비전은 인류의 공동번영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우호협력 및 상호이해 증진,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한 단원들의 자아실현 및 성장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해외 봉사과정을 통하여 젊은이들은 상당수준의 현지어를 습득하고 국제적 감각을 키우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

2008년부터 3년간 우리나라에서 미국대사로 활동했던 캐서린 스티븐스 대사는 1970년대에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충남 예산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그때 배운 한국어는 그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그는 우리나라에 부임한 역대 미국대사 21인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에는 대학생봉사단 27명이 'Hello Nepal, Welcome Korea!'라는 프로그램으로 카트만두 대학을 방문하였다. 부채춤, 태권도, 시대를 반영하는 패션쇼, 걸 그룹 댄스 등 문화공연을 하고 이 대학 학생들과 어울려 우정을 나누었다. 행사를 뒷바라지한 KOICA의 염빛나리 단원은 유창한 네팔어와 영어, 그리고 우리말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네팔학생들이 열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대사와 부총장이 참석, 축사를 하며 이들을 환영하였다. 봉사단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기술교육센터에서 MS 워드와 엑셀을 가르치고 초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위생 등 실기교육, 담장 도색 등 지역봉사로 2 주간의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간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 단원 모두에게 야크털 네팔 숄을 선물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월드프렌즈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금년 초에 필자가 근무하는 약학과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로지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의약계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부터 이들에 걸쳐 각 분야의 역할, 요구하는 인재상, 어려운 점,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수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번 진로지도 포럼은 네팔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사로서 대학 담당자, 초청연사들은 모두 한국에 감사한다고 했다. 현수막과 한국에서 제작한 기념 타월에는 어김없이 WFK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타월을 사용할 때마다 월드프렌즈, 코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정부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원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월드프렌즈로 살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특별히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강원희 선교사에게 해외동포상을 수여하였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네팔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찾아 다니며 인술을 펴왔다. 이들 부부는 가는 곳마다 세계인의 친구로서 한국인, 즉 WFK의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WFK의 로고는 오렌지, 노랑, 연초록, 남색, 회색의 다섯 가지 색으로 표현되는 꽃잎 속에 오렌지와 남색 꽃술이 태극문양으로 마주보는 형태이다. 오대양 육대주를 아우르며 세계 속의 한국으로, 진정한 우정의 꽃으로 피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세계 각 곳에 더 많은 한국인 봉사자들을 보내야 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어린이집 수난(受難)의 극복 방안

이 동 범
미래교육발전포럼 공동대표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무자비하게 아동을 때리는 장면이 찍힌 CCTV영상으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평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울산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2개월 남자 아이를 물티슈로 입을 막는가 하면 어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을 화장실에 18분이나 감금질하는 등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에 민간 어린이집이 3만 8000여 개나 된다고 하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집 정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특단의 법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안이 10년간이나 보류되어 왔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보편적 복지만을 우선시하여 복지만을 넓히고 근본적인 대책은 뒷전에 두었다는 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십수 명의 어린이를 혼자서 돌보는 보육교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점, 일부 어린이집은 정상적인 보육은 뒷전에 두고 돈벌이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웃돈을 주고 매매하여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등 그릇된 생각과 행동에서 빚어진 작태라고 보아진다.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안정적이고 보육교사 보수도 높아 서비스 질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육교사가 몰리고 있으며,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유치원보다 나쁘다'는 인식이 커져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세 민간 어린이집의 과공급 상태를 깨기 위해서 적극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생 모집이 50%인 상황이 계속되거나 3년 연속 서비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게 지원을 줄여야 한다. 반면 우수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단가를 높여주고 보조교사 배치 등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라고 본다.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와 사회봉사자 참여 수업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집을 외부에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어린이집에 부모, 조부모, 자원봉사자 같은 외부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올 경우 아동학대는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이벤트행사로 열리는 '부모 학습 참여'를 상시화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들이 단순히 수업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밥먹기, 교재 만들기, 옷입히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보육기관의 시설 수준을 비롯해 교사들의 교수법, 말투,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한다. 부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부모 모니터링은 부모 평가위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무작위로 해당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하는 제도이다. 주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많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외부 사람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어린이집에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외부에 갇혀있는 어린이집을 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부모들이 '어린이를 직접 기른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계기로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무상교육=무조건 어린이집 보내기'란 공식을 버릴 필요가 있다. 특히 0~2세 영아들은 집에서 직접 부모가 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직접 아이를 돌볼 여건에 있는 부모들부터 '영아 때는 가정 양육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렵겠지만 이에 대한 노력이나 방법을 강구해볼 일이다.

넷째,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인성중심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장과 보육교사의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인 감시단을 조직하여 학부모와 어린이집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웃는 얼굴, 부드러운 말씨, 따뜻한 손길'로 모성애(母性愛)와 교육애(敎育愛)를 발휘하여 '바로 내앞에 있는 아이가 내자식'이라는 신념으로 인내하며,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여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역할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社 說

광주 '수소차 메카'로 새 역사 써나가야

정부와 광주시, 현대차그룹이 지원하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차 양산능력을 갖춘 현대자동차와 연구기관 등 수소 인프라가 잘 마련된 광주가 힘을 모아 수소차산업의 생태계를 광주에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동차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 수소 연료 전지차 연관 산업 육성,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제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투자 규모만 1775억 원에 달하며, 서민생활 창조경제를 위한 100억 원의 기금도 별도로 조성할 방침이다.

기업이 지역과 손잡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아직 초기 단계인 세계 수소시장에서 광주가 '수소경제'의 리더로 발돋움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광주가 수소차산업의 메카가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현대차의 통 큰 투자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또한 수소차산업 육성도 박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과 병행해야만 제 속도를 낼 수 있다.

광주시가 오는 2020년까지 빛그린 및 진곡산단에 미래형 자동차 핵심부품 등을 생산할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의 현실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낙후된 광주·전남, 나아가 박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가균형발전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광주시와 지역민들도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선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인구직난 해소를

구직자는 남아도는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인력공급,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

26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구직자 수는 지난 2012년 9만1191명, 2013년 10만9367명, 지난해 12만462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2012년 1만3919명, 2013년 1만4090명, 지난해에는 1만5279명의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1차 원인은 구직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이다.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임금수준은 높은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채용하지 못해 부족한 인원 중 92.5%(1만4559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었던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선결과제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시원치 않았다.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강화된 안을 수립해야 할 때다.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한전 등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관은 물론이고 협력업체와 연계한 질 높은 새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취업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지역 대학 등이 함께하는 취업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기업 맞춤형 인재개발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무원들을 중소기업과 1대1 매치시켜 구인난을 해소하는 부산시의 '공무원 일자리 창출 후견인제'처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無 等 鼓

1000만 돌파, 난타

1995년 어느날, 술자리에서 만난 공연담당 기자가 던진 한마디가 연극배우 송승환의 운명을 바꿨다. 음반 제작과 콘서트 기획을 하다 슬럼프에 빠져있던 그에게, 기자는 "유럽에 갔더니 두들기기만 하는 연극이 있더라"고 귀띔했다. 영국의 비언어극 '스톰프(Stomp)'를 지칭한 말이었다. 1991년 첫 선을 보인 스톰프는 쓰레기통과 빗자루를 타악기로 두드리는 거리공연이다.

순간 송승환은 사물놀이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술상을 두들기던 모습, 어머니가 칼로 도마를 치던 이미지가 떠올랐다. 요리사 3명과 지배인 1명이 주방에서 벌이는 왁자지껄한 소동극, 난타는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1997년 10월 10일 서울 호암아트홀의 첫 공연은 썰렁했다. 주연 배우도 없어 4명 중 2명은 김덕수 사물놀이패에서 빌려왔다. 답답한 마음에 초대권을 뿌렸고 신문에 호평이 실리면서 1주일만에 표가 동이 났다.

원래 제목은 '인 더 키친(in The Kitchen)'이었는데 야채를 칼로 두들기는 모습을 본 한 직원이 "난타구먼, 난타"라고 중얼거렸다가 난타가 됐다.

오스트리아 작가 피터 한트케는 "연극이 축구시합 90분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승환은 이런 신념으로 난타 공연 100분간 관객들과 배우가 함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도록 했다.

난타 공연 17년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기념으로 백서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51개 국, 289개 도시에서 3만 1290회의 공연을 펼쳤다. 오이 31만 2900개, 양파 12만5160개, 양배추 21만 9030개, 당근 31만 2900개가 무대에서 잘게 다져졌다. 도마는 2070개, 칼은 무려 1만8975자루를 썼다.

영화 '7번방의 선물'로 유명한 배우 류승룡도 난타가 배출한 스타다. 그는 난타 1기생으로 7년간 주방장으로 출연했고 3년간 조연출을 맡았다.

송승환은 난타의 장기 흥행 비결로 한국만의 독특함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꼽았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 하지만 지구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드리면 열린다'는 진리도 일깨워줬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